

AUTHOR 석기신

TITLE John Calvin에게서 나타나는 개혁주의
변증학의 몇가지 원리들

IN 고려신학

vol.3 (2002) : 211-226

Bibliography

Allis, Oswald T. *The Five Books of Moses*. New Jersey: P&R Publishing, 1949.
 ----- *God speak by Moses. An Exposition of the Pentateuch*, New Jersey: P&R Publishing, 1949.
 Alter, Robert. *The Art of Biblical Narrative*. New York: Basic Books, 1981.
 Bauer, Johannes B. *Encyclopedia of Biblical Theology*. New York.
 Boice, J. M. Genesis, *An Expository Commentary*, v.3.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87.
 Carson, D. A. *God with Us, Themes from Matthew*. Ventura: GL Regal Books, 1985.
 Dumbrell, W. J. *Covenant & Creation. A Theology of the Old Testament Covenants*.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93.
 Fritsch, C. T. "God was With him: A Theological study of the Joseph Narrative," *Interpretation* 9(1), (1955).
 Goldin, J. "The Youngest Son or where Does Genesis 38 belong," *JBL* (1977).
 Gruber, Mayer I. "Hebrew Qedesah and Her Canaanite and Akkadian Conqnates," *Ugarit-Forschungen* 18, (1986).
 Longacre, Robert E. *Joshep: A Story of Divine Providence*. A Text Theological and Text linguistic Analysis of Genesis 37 and 38-48, Winona Lake: Eisenbrauns, 1989.
 Merrill, Eugene. *Kingdom of Priests*. Grand Rapids: Baker, 1987.
 Pelikan, Jaroslav and Hansen, Walter A. eds, *Luther's Works, V. 7, Lectures on Genesis*. Ch. 38-44. St. Louis: Concordia, 1965.
 Rendsburg, Gary A. "David and His Circle in Genesis XXXVIII". *Vetus Testamentum* XXXVI, (1986. 4).
 Robertson, O. Palmer, *The Christ of the Covenants*. Phillipsburg: P&R Publishing Co., 1980.
 Rosen, "Early Israelite Cultic in the Hill Country," *Vetus Testamentum* 38, (1988).
 Sarna, Nahum. *Genesis, JPS Toral Commentary*. New York: JPS, 1989.
 Vos, Geerhardus. *Biblical Theology, Old and New Testament*.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83.
 Waltke, Bruce K. & O'Connor, M. *An Introduction to Biblical Hebrew Syntax*. Winona Lake: Eisenbrauns, 1990.

John Calvin에게서 나타나는 개혁주의 변증학의 몇가지 원리들

석기신
<교의신학>

I. 서론	IV. Calvin의 특별 계시론
II. 신지식과 일반 계시	V. 특별 계시와 성령의 증거
III. 인간의 타락과 일반 계시	VI. Calvin과 인간의 이성
	VII. 맺는 말

I. 서론

개혁주의라 불리우는 신학 체계의 위대한 시발자는 Geneva의 개혁자 John Calvin이라는 사실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Calvin으로부터 파생되는 체계로서의 개혁주의 신학과 변증학은 물론 Calvin이 남긴 불후의 명작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에서 그 최대 표현을 볼 수 있다. Calvin은 변증학이라 불리우는 신학의 한 분과에 속한 주제들에 대해서 적지 않은 강조점을 두었는데 이는 그의 체계적인 신학에서 중요한 위치를 변증학적인 내용들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었다.¹⁾ 엄밀

1) Benjamin B. Warfield, "Calvin's Doctrine of the Knowledge of God," *Calvin and the Reformation*, ed., William Park Armstrong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81), 132.

히 말해서 개신교 신학의 역사에 있어서 기독교 변증학에 대해서 그렇게 포괄적으로 체계적인 의형선을 처음으로 구획해 놓은 것은 Calvin이었다고 보아도 전혀 무리가 없다. 사실 Calvin의 *Institutes*가 처음으로 출판되자마자, 그의 변증학적 구조는 개신교 신학 체계에 있어서 주요한 근간이 되었던 것이다.²⁾

Calvin뿐만 아니라 Luther 역시 변증학적인 이슈에 있어서 두 가지 주요한 태도에 동의하고 있음은 주지할만한 일이다. “1. 이들은 모두 로마 천주교의 스콜라신학자들에 의해 달성된 철학과 신학의 통합은 도움보다는 해가 되는 것임에 동의했다. [스콜라 신학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명료성을 가렸다. 2. 이들은 모두 기독교 신앙은 자율적임에 동의했다. 즉 [기독교 신앙은] 그 신빙성에 있어서 철학의 지지나 인간적 논쟁의 힘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³⁾

종교개혁자들은 한결 같이 로마 천주교로부터 철저한 단절을 요구하며 그들의 사상을 연마하였다. Luther처럼 Calvin도 로마 천주교 신학에서 자신의 입장을 분리시키며 결별시켰는데, 보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Thomas Aquinas에게서 발견되는 전통적 천주교의 변증학적 방법론에서도 철저히 자신의 신학적 입장을 분리하였다. 그래서 Calvin은 도저히 상의점을 찾아 볼 수 없는 Aquinas적 신학에 대해 자주 거침없는 날카로운 비평의 목소리를 높이는 일에 주저하지 않았던 것이다. 본고에서는 Calvin에게서 발견되는 개혁주의 변증학의 몇 가지 원리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다.

II. 신지식과 일반 계시

*Institutes*의 서두에서 Calvin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인간의 지성 가운데는, 또한 자연적인 본능으로, 신성에 대한 의식이 자리잡고 있다.”⁴⁾ 그는 또 말하기를, “하나님 당신께서는 당신의

2) Warfield, “Calvin’s Doctrine of the Knowledge of God,” 133.

3) Bernard Ramm, *Varieties of Christian Apologetics*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79), 165.

신적 장엄성에 대한 일종의 이해성을 모든 인간에게 심어 놓았다.”⁵⁾ Calvin의 말은 너무 뚜렷한 표현들이기 때문에 실상 그의 말에 주석을 달 필요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Calvin이 우리가 개혁주의 신학에서 언급하는 일반계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그가 이러한 의미로 말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모든 사람”이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선천적인 의식(*innate awareness*)을 소유하고 있고 이는 하나님 자신이 심어 놓았다고 하였다. 물론 타락한 인간이 이러한 지식을 자신의 구원을 위해 스스로 이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된다. Calvin 자신의 말을 들어보자: “자만심과 어우러진 허영심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일에 있어서도 감지될 수 있다. 왜냐하면 비참한 인간은 마땅히 넘어서야 할 자신들을 넘어서 설 수 없을 뿐 아니라, 그들 자신의 인간적인 어리석음이라는 잣대로 하나님을 측정하여 온건한 탐구를 게을리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 자신이 보여주는 대로 하나님을 깨닫지 않으며 인간 자신의 추정 속에 모방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상상한다.”⁶⁾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모든 인간들 속에 종교의 씨앗을 심어 놓았음”⁷⁾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지속적이고도 습관적인 죄악된 삶 때문에 하나님에 관한 참 지식은 미신 가운데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려는 의식적인 또한 무의식적인 사고행동 가운데 잃어 버려진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Calvin은 Cicero를 인용하면서 확인시키고 있다: “허나 저명한 이교도가 말하는 것처럼, 어떤 민족이나 백성도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깊은 확신을 갖지 못할 만큼 야만스럽거나 무지막지하지는 않다.”⁸⁾ Calvin에 따르면 우상숭배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일종의 증거가 되는데⁹⁾ 그래서 Calvin은 말하기를 “신성에 대한 의식은 본성적으로 인간의

4) John Calvin, *Institutes of Christian Religion*, ed., John T. McNeil and Ford Lewis Battles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75), I.iii.1. 이후로부터 *Institutes*로 약함.

5) *Institutes*

6) *Institutes*, I.iv.1.

7) *Institutes*, I.iv.1.

8) *Institutes*, I.iii.1.

9) *Institutes*, I.iii.1.

마음에 새겨져 있다는 나의 현재 주장은 보다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였다.¹⁰⁾

인간이 인간이라는 사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신적 의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Calvin은 자신의 입장을 기초하고 있다. “이것은 철학자들이 말하는 소위 하나님에 대한 선천적인 개념의 입장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이는 피조 세계 내에 있는 하나님의 증거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있다.”¹¹⁾ Calvin은 계속되는 논지에서 인간의 재능과 은사들도 사실은 일반 계시의 한 부류라고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인간이 소유한 재능과 은사들은 모두 그것을 주시는 이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었다. “경험은 우리에게 우리가 또 다른 근원으로부터 불균형하게 분배되었음을 배울 수 있을진대… 과연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가리켜 그 많은 예술과 유용한 것들을 발명한 자들이라고 볼 수 있을까?”¹²⁾

Calvin에 의하면 인간의 지성 자체도 계시적이였다. 이는 “인간에게서 신성에 대한 틀림없는 표식”이였다.¹³⁾ 이와 아울러 인간이 소유한 도덕성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이였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판단에 의해 옳고 그름 사이를 구분하면서도 과연 하늘에 심판자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¹⁴⁾ Calvin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인간 자신의 부패성에 대한 자의식 역시 계시적임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우리 자신의 무지, 허영심, 빈곤, 결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타락과 부패의 사실로부터 지혜의 진정한 빛, 건전한 덕망, 모든 선의 충만함, 그리고 의의 순결성이 주님에게만 있음을 보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부덕함을 볼 때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목상하게 된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들에 대해 철저히 실망하지 않는 한 하나님을 정말로 열망할 수 없다.”¹⁵⁾

여기에서 이제 Calvin은 창조 세계에 있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계시 형태를 보여 주기 위해 움직인다. 인간은 하나님을 하나님 자신 스스로 알고 있는 모습으로 알지 못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초월하시는 성품에 기인한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 내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또 알 수 있다.¹⁶⁾ “하늘과 땅에는 하나님의 기묘한 지혜를 선포하고 있는 셀 수 없는 증거들이 있다.”¹⁷⁾ “하나님은 당신의 사역 가운데 의심할 수 없는 그 영광의 표식을 새겨 놓았는데 이것은 그렇게도 분명하고 현저하여서 배우지 못하고 무식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무지에 호소하는 변명을 할 수가 없다… 주님은 우주의 창조 이후 당신 의상의 가지적 장엄성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기 시작하였고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눈을 들어 보기만 하면 당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이기 위한 표식들을 보여 주었다.”¹⁸⁾

즉 이러한 사실로부터 Calvin은 창조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일반 계시를 강조하였음을 알 수 있다. Calvin은 이러한 일반 계시가 그 창조주를 지적하고 나타내고 있음을 확고히 믿었던바, “가장 확실한 이교도”라 할지라도 이 사실을 인지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내적 증거는 창조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증거와 거의 직접적으로 부합되는 것이어서 그 어떤 인간도 무지에 호소함으로써 그 핑계로 삼을 수 없다.¹⁹⁾ 따라서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서 선천적으로 알려져 계신 분이시다.

Calvin의 사고에 따르면 하나님은 모든 일에 있어서 주권적으로 활동하신다. 인간 자신의 인간됨의 구조 속에서 그리고 창조 세계에 스며있는 하나님의 일반 계시와 아울러 Calvin은 하나님의 섭리도 계시적이라고 보았는데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응대한 지혜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었다.²⁰⁾ “하나님은 창조 세계에서 계속적으로 활동하신다. 하나님은 자리를 지키지 않는 주인이거나 무관심한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신이 아니

10) *Institutes*, Liv.4.

11) Ramm, *Varieties of Christian Apologetics*, 166.

12) *Institutes*, Iv.5.

13) *Institutes*, Iv.5.

14) *Institutes*, Iv.5.

15) *Institutes*, Ii.1.

16) Ramm, *Varieties of Christian Apologetics*, 166-67.

17) *Institutes*, Iv.2.

18) *Institutes*, Iv.1.

19) Ramm, *Varieties of Christian Apologetics*, 167.

20) Ramm, *Varieties of Christian Apologetics*, 167.

시다.”²¹⁾ 이 점을 Calvin은 당신의 창조 세계를 향해서 행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피력하면서 지적하고 있다. “우리 자신의 본성을 상고할 때마다 모든 본성들을 주장하시는 이는 한 분 하나님으로 그는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바라보게 하며 우리 신앙을 당신께로 이끄시고 당신을 부르도록 하시는 이심을 기억하자.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기막힌 은사들을 만끽하면서도 그것들을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근원자를 망각하는 일보다 더 터무니없는 일은 없다.”²²⁾

Calvin의 신학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에 있어서 당신의 개입이라는 사상에까지 확장되고 있다. 그래서 Calvin의 신학 구조 속에는 그 어떤 영역이나 사건들도 우연이라는 국면으로 전락되지 않는다.²³⁾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도 역시 창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증거가 된다.

Calvin에게 있어서 신학에서 말하는 일반 계시는 만인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도록 하는데 충분한 것임이 명백하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시 때문에 인간은 그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지에 호소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인간은 피조 세계인 우주에 있는 목적과 질서를 의식하고 있다. 따라서 인간은 핑계하지 못할 것인데 이유는 하나님이 창조 세계, 역사, 섭리, 우주의 질서와 목적, 그리고 인간의 본성 가운데 당신을 알도록 나타내셨기 때문이다. 이점에 있어서 Calvin의 입장은 분명하다.

이제 Calvin의 신학 구조에 입각하여 이러한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선천적으로 모든 인간에서 알려져 있다면, 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가? 이제 여기에 돌이킬 수 없는 인간의 타락이라는 역사적 사실이 등장한다.

III. 인간의 타락과 일반 계시

인간은 “하나님 사역의 분명한 거울”²⁴⁾ 까닭에 자연을 통해

21) Ramm, *Varieties of Christian Apologetics*, 167.

22) *Institutes*, I.v.6.

23) Ramm, *Varieties of Christian Apologetics*, 167.

24) *Institutes*, I.v.3.

그리고 자신의 인격적 구조를 통해 그 창조주의 영상을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여기에 중요한 한가지 문제점이 드러난다. 당신을 분명히 보여 알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여기에 환답하는 일에 실패한다 (롬 1:20). “[인간의] 어리석음 때문에 우리는 명백한 증거에 대해서도 점차적으로 둔감해지고, 증거들 역시 유익을 주지 못하고 사라져 버린다.”²⁵⁾ 인간은 이 하나님의 계시에 그렇게도 무응답적이어서 “급작스럽게 일종의 신성의 개념을 붙잡는다 하더라도… 이내 곧 하나님의 순수한 진리를… 육체와 타락상의 흉악한 형상들로 전락시켜 버린다.”²⁶⁾

도대체 Calvin이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어리석음과 둔감성은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가? Calvin에 의하면 그것은 다름 아닌 창세기 3장에 기록된 원죄로 말미암은 것으로 이 원죄는 “정신과 마음을 모두” 점령하고 있고 이로 “전인이 전복당한 것이다.”²⁷⁾ 계속해서 Calvin은 “[인간에게 내재하고 있는] 상처는 죄에 의해서 가해진 것임이 명백하다”고 하였다.²⁸⁾ 따라서 일반 계시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현시는 타락한 죄인 인간에게는 무익할 뿐이며 인간은 이 일에 있어서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다. “비록 인간에게 [죄로 인해] 순전하고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이르는 자연적인 능력이 결여되었더라도 우리가 핑계를 달 수 없는 것은 둔감함이라는 결점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²⁹⁾

이 시점에서 Calvin은 악의 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즉, 자연적인 능력으로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에 이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인간의 책임으로 하나님께서 돌린다면, 하나님에게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이다. Francois Wendel은 여기에 관한 Calvin의 입장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다. “... 그는[Calvin] 인간의 전적 책임을 긍정하지 않을 수 없다. 실상 인간은 그 고결한 상태에서 자유한 삶을 가졌

25) *Institutes*, I.v.11.

26) *Institutes*, I.v.11.

27) *Institutes*, II.1.9.

28) *Institutes*, II.i.11.

29) *Institutes*, I.v.5.

었다. ... '따라서 아담은 원했다면 자신의 의지로 넘어지지만 않았었다면 그 지위를 보존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의 의지가 선과 악에 대해 열려져 있었고 [끝까지] 견인할 수 있는 일관성이 주어지지 않았으며, 그래서 [아담은] 그렇게 빨리 쉽게 타락한 것이다.' 왜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런 견인의 은사를 수여하지 않았는가 하는 문제에 관한 한 '그것은 하나님의 면밀한 작정 속에 감추인 것으로 그 이상의 것을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임무이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아담에게 주었으며, 아담의 타락을 허용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른 곳에서 물론 Calvin은 그의 일반적인 가르침에서 볼 수 있는 논리에 의해 하나님의 표현되어진 의지에 모든 것들을 종속시키고 있음을 본다."³⁰⁾

다른 책에서는 Calvin이 보다 일관성이 있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다. 그의 *Treaties on Predestination*에서 Calvin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신앙인들은 이 두 가지를 서로 일치하는 것으로 본다; 즉 창조시에 구성된 인간의 상태 때문에 자기 자신의 뜻으로 넘어지고 타락한 일에 있어서도 인간은 하나님의 감탄할 만한 지혜로 결정되었으며 그래서 아담의 자발적인 파멸은 모든 인류에게 겸손하여야 할 이유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전락적임을 하나님이 알고 있었어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형성된 선한 본성을 가진 인간의 파멸이 스스로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하거니와 이러한 [나의 생각이] 하나님을 경멸하는 불순한 사람들에게는 모순되고 어리석음의 소치라는 인상을 줄 것이라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다."³¹⁾

즉 Calvin에 의할 것 같으면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인물이 아니었던 것이다. 이러한 입장을 Calvin은 "인간의 마음속에 새겨진 신적 의식(a sense of divinity)은 지울 수 없는 것임"으로³²⁾ 인간은 핑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적함

으로 어느 정도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 이러한 의식은 깊이 새겨진 것인데 "마치 골수 가운데 있는 것 같이 [인간의] 내부에 깊이 고정되어 있다."³³⁾ 따라서 Calvin이 내린 결론은 인간이 핑계치 못할 것이며 하나님은 인간의 죄과에 책임이 없는 것이었다.

Calvin은 이제 한가지 흥미로운 현상에 대해 관찰한다. 이 하나님에 대한 선천적인 지식은 인간에 의해 억눌림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것이다. Calvin에 의하면 이러한 사실적 현상은 철학적인 사고로 혹은 거짓 종교 형태로 혹은 미신적 표현으로 부상한다.³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신들이 인간의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데, 지나친 방종 가운데 하나님 자신에 관해서 이렇고 저런 이 모든 것들이 고안된다."³⁵⁾ Calvin은 계속해서 이런 점에서 스토아 철학, 에피쿠리안 학파, 이집트인들은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을 갈구한다"고 지적하고 있다.³⁶⁾ 타락한 인간들에게는 "불확실한" 혹은 거짓된 신들을 모방하는 것이 참 하나님의 존재를 노골적으로 부인하는 것보다 더 바람직하기 때문이었다.³⁷⁾

Calvin에 따르면 Plato는 "가장 종교적이고 조심성 있는" 철학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철학 역시 무익할 따름이었다.³⁸⁾ 이 세상이 낳은 철학자라는 무리들은 그들의 활동을 통해 "그들의 어리석음과 우둔함"을 보여 주었을 뿐이었다.³⁹⁾ 이러한 입장에서 Calvin이 이러한 세속 철학자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태도는 적대적이었음은 말할 것도 없다.

타락한 인간은 그 타락한 상태에서 헛된 철학을 창출해 낼 뿐 아니라, 그릇된 종교도 고안해 낸다. Calvin에 의하면 그릇된 종교는 "하나님의 자리를 마귀들로 대체한다."⁴⁰⁾ 따라서 그 어떤

30) Francois Wendel, *Calvin* (Glasgow: William Collins Sons and Co., 1980), 186.

31) John Calvin, *Treaties on Predestination*, 8, 294.

32) *Institutes*, I.iii.3.

33) *Institutes*, I.iii.3.

34) Ramm, *Varieties of Christian Apologetics*, 170-71.

35) *Institutes*, I.iii.3.

36) *Institutes*, I.iii.3.

37) *Institutes*, I.iii.3.

38) *Institutes*, I.v.11.

39) *Institutes*, I.v.11.

종류의 진리 종교도 인간의 지력에 기초할 수 없으며,⁴¹⁾ 인간들이 소유한 무지라는 가장은 인간의 타락상과 감사하지 못하는 양심의 정죄인 것이다.⁴²⁾

Calvin은 확실히 이후 신학이 언급하고 있는 일반 계시의 개념을 그의 신학에서 이미 전개하고 있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선천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 하나님은 창조 세계에서 또한 섭리를 통해서, 그리고 인간의 본질적인 성격 가운데서 자신을 나타내고 계신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은 부패된 상태 때문에 이 일반 계시는 타락한 인간에서 더 이상 유용하지 못하게 되었다. Calvin은 이러한 이유로 어떤 종류의 자연 신학의 가능성도 배제하고 있으며 따라서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필연성을 주장하게 된 것이다.⁴³⁾

IV. Calvin의 특별 계시론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자신의 고안에 내버려진 인간은 영적인 암흑 가운데 처해져 있는데 이는 일반 계시를 통해 제공되고 있는 하나님의 빛이 인간에 의해 무참히도 억눌림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인간이 소유하기 위해서는, Calvin에 의하면, 특별한 도움이 필요했던 것이다.⁴⁴⁾ 일반 계시를 통해 인간에게 주어진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우주의 창조주에게로 올바르게 지도할 수 있는 또 다른 더 좋은 도움이 추가되는 일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인도하는 당신의 말씀의 빛을 첨가하신 일은 헛된 일이 아니다... 따라서 성경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혼동된 하나님의 지식을 모아서 우리의 둔감함을 해체시킴으로 확연하게 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준다.”⁴⁵⁾ 물론 Calvin이 오늘

40) *Institutes*, I.v.13.

41) *Institutes*, I.v.13.

42) *Institutes*, I.v.15.

43) Ramm, *Varieties of Christian Apologetics*. 171.

44) J. K. S. Reid, *Christian Apologetics* (Grand Rapids: Eerdmans, 1970), 135.

신학에서 사용되는 전문 용어인 ‘특별 계시’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alvin은 여기에서 분명히 일반 계시와 구별되고 대조되는 또 다른 계시의 형태, 즉 그가 말하느바 “성경의 안경(the spectacles of Scriptures)”이라고 부르는 특별 계시를 말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하나님에게 기인한 일반 계시가 타락한 인간에게 그 본연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하나님은 타락한 피조물인 인간에게 필요한 또 다른 종류의 자기 계시를 주었다고 Calvin은 여기에서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Calvin의 의미에 따르면 특별 계시는 그 본성상 구속적이고 구원론적이다. 이러한 사실은 Calvin은 그의 *Institutes* 제이권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주 하나님의 지식”이라는 제하에서 상세히 다루고 있다.⁴⁶⁾ Bernard Ramm은 이러한 Calvin의 특별 계시관의 면모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Calvin의 특별 계시관에 있어서] 두 가지 사실을 주목하여야 한다. (a) 계시의 구속성에 강조점이 있다는 사실은 아주 중요하고 또 강하게 나타난다. 계시는 진리를 사발에 담은 것 같은 것이 아니라, 진리인 [계시는] 우리의 부패성을 고치고 싸매어 준다. (b) 비록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진 않지만 Calvin은 거룩한 성경을 취급하기 이전에 원리적으로 구원론적인 계시를 다루고 있다. 따라서 [기록된] 성경이 있기 이전에 특별한 구원론적인 계시가 있었던 것이다.”⁴⁷⁾

인간이 타락한 까닭에 이러한 구원론적 계시는 그 정확성과 권위를 보장하기 위해 기록된 형태로 주어져야 했다. Calvin의 말을 빌자면 이것은 “진리가 모든 시대에 보존되고 계속되는 가르침을 통해서 세상에 영원히 존립케” 하기 위함이었다.⁴⁸⁾ 계속되는 Calvin의 논지를 들어보자. “이러한 천상적인 교리가 기록된 증명으로 [주어졌던] 일은 필요한 일이었음을 감지할 수 있는데 이는 [인간의] 망각을 통해 멸절되거나, 오류를 통해 사라지거나 혹은 인간의 무모함에 의해 변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45) *Institutes*, I.vi.1.

46) Ramm, *Varieties of Christian Apologetics* 172.

47) Ramm, *Varieties of Christian Apologetics* 172.

48) *Institutes*, I.vi.2.

따라서 하나님은 유용한 교훈을 주시기로 기뻐하신 자들을 위해서 말씀의 보조를 제공하신 것이 분명하다. ...”⁴⁹⁾

이러한 Calvin의 논지에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자명하다. 즉, “모든 구체적인 목적과 실제적인 목적을 위해서 기록된 말씀은 Calvin에게 있어서 명확하게 특별 계시의 말씀이었다.”⁵⁰⁾ 이러한 특별 계시인 말씀이 존재하게 된 이유는 인간의 타락 때문이었고 이러한 타락한 상태를 갱신할 목적으로 구속적인 차원에서 말씀 계시가 주어진 것이다. 십자가가 우리의 범죄를, 부활이 우리의 영적인 사망을 극복하는 것이라면, 특별 계시는 우리의 타락 가운데 있는 무지로부터 극복을 약속한다.⁵¹⁾

Calvin의 결론에 의하면 특별 계시는 “기록한 말씀인데, 도움을 받고 보조되지 않는 한 그 미약함 때문에 결단코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는 [인간의] 마음”을 도와주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었다.⁵²⁾

V. 특별 계시와 성령의 증거

Calvin이 보는 성경의 신빙성에 대한 근거는 무엇일까? 물론 교회의 권위나 혹은 어떤 다른 외적인 권위에 근거한 것은 절대로 아니었다.⁵³⁾ “성경에 대한 최상의 증명은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말씀하신다는 사실로부터 일반적으로 기인한다.”⁵⁴⁾ Calvin은 인간의 이성이나 판단 혹은 추측보다 훨씬 높은 곳에서 성경에 대한 우리의 확신을 찾아야 할 것을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다.⁵⁵⁾

Calvin에 의하면, 성경에 대한 신앙은 성경 자체의 증거에 의해

49) *Institutes*, I.vi.8.

50) Ramm, *Varieties of Christian Apologetics*, 173.

51) Ramm, *Varieties of Christian Apologetics*, 173.

52) *Institutes*, I.vi.4.

53) Reid, *Christian Apologetics*. 135.

54) *Institutes*, I.vii.4.

55) *Institutes*, I.vii.4.

서 지지되고 있을 따름이며, 이는 인간의 이성이나 교회의 권위에 의한 그 어떤 외부적인 보증이 필요 없는 일이었다.⁵⁶⁾ Calvin은 이러한 자신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피력하였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종교는 [사람들의] 견해에 의해 세워지는 것인데 그래서 이들은 어리석게 혹은 가볍게 무엇을 믿지 않기 위해서 모세나 선지자들이 신적으로 말했다는 합리적인 증거를 바라고 또 요구한다. 하지만 나는 대답한다: 성령의 증거는 모든 이성보다 훨씬 뛰어난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 홀로 당신의 말씀 가운데 자신에 대한 적절한 증인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성령의 내적인 증거에 의해 인침받지 않은 인간의 마음속에서는 수용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말씀하셨던 동일한 성령은 우리들의 마음속을 관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명령받아 성실하게 전한 것을 우리로 하여금 확인시켜야만 하는 것이다.”⁵⁷⁾

그렇다면 Calvin의 주장에 따른다면 오직 성령만이 성경의 증거에 대한 진리를 인간으로 하여금 수용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것이다. 이러한 논지로부터 Calvin은 성경 말씀이 자증적(self-attesting)일 수밖에 없다고 결론짓고 있는 것이다. “이제 아래와 같은 점을 분명히 하자. 성령께서 내적으로 가르친 사람들은 성경에 의거하고 있으며 또한 성경은 참으로 자증적(self-authenticated)이라는 것이다; 고로 [성경을] 이성과 증명 아래 종속시키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우리와 관계된 성경의 확실성은 성령의 증거에 의해서 기인된 것이다. 성경이 그 스스로의 장엄성에 의해 [인간의] 경탄을 자아낼지라도 오로지 성령에 의해서 우리 마음에 인쳐 질 때에만 심각하게 우리에게 영향을 행사하게 된다. 따라서 인간의 능력이나 판단에 힘입어서 우리 가운데 성경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판단을 넘어서 우리는 [성경을] 지고의 확신으로 주장하는 것이다.”⁵⁸⁾ 이러한 Calvin의 입장은 지상의 교회가 무엇이 성경인지를 결정하는 로마 천주교와는 완전히 상반

56) Reid, *Christian Apologetics*. 136.

57) *Institutes*, I.vii.4.

58) *Institutes*. I.vii.5.

되는 것이었다. Calvin은 분명히 천명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였다.⁵⁹⁾

성경이 이러한 성령의 증거를 필요로 하는 이유는 인간이 타락한 까닭이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여져야만 한다. 그리고 바로 이 사실은 인간의 억견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신적 기원의 진리에 기초한 것이다. “따라서 Calvin이 말하는 성령의 증거라는 위대한 교리로부터 우리는 [인간의 타락에 대한] 치료함을 얻게 된다.”⁶⁰⁾ 오직 성령만이 타락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특별 계시로 보게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성령의 증거는 신적 확실성과 더불어 주어진다. 따라서 Calvin에 의하면 성령의 증거는 조명(illumination)인 동시에 설득(persuasion)인 것이다.⁶¹⁾

여기에서 한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Calvin이 신적인 진리로서의 성경에 대한 어떤 형식적 명제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Calvin은 여기에서 구원론적인 계시로서의 특별 계시를 언급하고 있으며, 그 주제는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주이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임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성경은 그 자체로 객관성 있는 하나님의 구속적 말씀이며 절대로 성령의 증거를 통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화하는 것은 아니다. Calvin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고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다. 성령은 단순히 이 명백한 사실을 부패한 인간의 마음속에서 확증해 줄뿐이다.⁶²⁾

VI. Calvin과 인간의 이성⁶³⁾

Calvin에게 있어서 성경 계시와 그 가운데 진리는 인간의 모든 지혜를 초월하는 것이었고 성경의 권위를 인간의 논증으로 확인

59) Ramm, *Christian Apologetics*. 136.

60) Ramm, *Christian Apologetics*. 136.

61) Ramm, *Christian Apologetics*. 136.

62) Ramm, *Christian Apologetics*. 136.

63) 여기에 관해서 보다 자세한 연구로는 Harvie Conn이 Westminster 신학교에 석사 학위 논문으로 제출했던 그의 “Calvin’s View of Reason”을 참고하라.

하는 것은 한낱 헛된 일이었다.⁶⁴⁾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지식이 확실성 가운데 주어질 수 있는 이유가 성령의 내적 설득력을 통해서 확인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⁶⁵⁾ 성경이 본질적으로 자증적인 까닭에 성령을 통한 이러한 자증적인 성경 계시 내용도 모든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성질의 것일 수밖에 없다. 여기에 요구되는 종류의 설득력이란 사실 그 진리성이 입증되기 위해서 논리적인 혹은 이성적인 이유들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 Calvin은 교회와 인간의 이성을 성령에 의해 확증되는 성경의 권위 아래에다 두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만드는 것이고 따라서 교회는 성경에 복종하여야 하며 그렇다면 교회는, 중세 로마 천주교처럼, 성경에 대해서 그 판단자가 될 수 없는 것이었다. 인간의 이성 역시 하나님의 말씀 아래서 있어야 하는데 왜냐하면 인간의 이성적 과정은 인간 속에 내재하고 있는 본질적인 한계를 극복할 수 없기 때문이었고, 인간 타락의 결과로 하나님에 의해서만 주어질 수 있는 인식론과 지성의 문제에 있어서 확실성을 소유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오로지 성경 가운데 성령의 증거만이 교회에 그리고 특별히 신자 개인에게 참 지식의 근거와 틀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성령의 내적인 설득력에 기초한 확실성이 있는 곳에서만 궁극적으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구원하시는 지식을 주기에 충분하다.”⁶⁶⁾

VII. 맺는 말

지금까지 Calvin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신학적-변증학적인 원리들을 살펴보았다. 물론 이러한 기본적인 자료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해설과 아울러 현대 변증학적인 토론을 곁들이는 것은 당연한 작업이라 하겠다. 그러나 본고의 목적은

64) *Institutes*, I.viii.1.

65) *Institutes*, I.viii.13.

66) *Institutes*, I.viii.13.

Calvin의 신학에서 나타나는 사상들 가운데 현대 변증학, 특별히 Cornelius Van Til을 중심한 개혁주의 변증학에서도 확인될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원리들을 돋보이는데 있었다. 본체론적 접촉점인 신지식의 문제, 인간의 타락이 인간 전인에 미친 영향으로 인한 신자와 불신자간의 인식론적인 공통분모의 자의식적 상실, 특별 계시인 성경이 스스로 가지고 절대적이며 자증적인 권위, 지금도 계시적으로 주어지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에 의한 증생의 원리에 입각한 반명제(antithesis)의 원리 등은 이렇게 이십세기 개혁신학이 고안해 낸 창조물이 아니라, 그 기원에 있어서 철저히 Calvin을 시발자로 삼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원리들이 현대 개혁주의 변증학자들에 의해 어떻게 이해되었고, 또 분석, 발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또 하나의 연구 과제로 남아 있다.

The Unity, Genre & Purpose of Luke-Acts: Revisited

허 주
<신약신학>

I. Opening Remarks	V. Summary & Closing Remarks
II. Unity	
III. Genre	Korean Abstract
IV. Purpose	Selected Bibliography

I. Opening Remarks

Lukan writings have received considerable attention in NT scholarship since a series of seminal works by Henry J. Cadbury, called the 'doyen of Anglo-Saxon research on Acts' (Haenchen 1971: 43), was published in the 1920s. In the following decades, Luke-Acts has been recognized as a 'storm center in contemporary scholarship' (van Unnik 1966), as 'shifting sands' (Talbert 1976, 1981) and as a 'fruitful field' (Gasque 1988, 1989a).¹⁾

1) Ju Hur, *A Dynamic Reading of the Holy Spirit in Luke-Acts*, (Ph. D. dissertation, Sheffield University, 1998), 1.